

# 아욱(葵菜),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에 대한 문헌고찰

金鍾德\* · 高炳熙\*

##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the mallow, hollyhock, darkpull, sunflower

*Kim Jong-dug, Koh Byung-h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 1. Purpose of study

In the medical science of 'Sasang', a constitutional examination(diagnosis) and a medical treatment are important, however a dietary cure is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at the medical prevention and treatment. But there has been a confusion due to the different view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foods in between scholars. There it is necessary for us to bring up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 dietary cure by means of the bibliographical study in relation to a historic, characteristics, efficiency of the major foods.

A mallow as called " Baekchejju" has been used as a source of adding food materials when we make a boiling soup, which is only in Korea but not other countries case. We also studied a hollyhock, a 'Darkpull', a sunflower together with a mallow, because these plants contains a similar characteristics and same chinese word of 'Gue' at their name. At this study we would like to bring up the basis correcting the evil of the misinterpretation to be translated 'Gue' into 'Sunflower', which would be helpful to the current academic circles studied very rarely for the introduction process of sunflower.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 2. Method of study

We did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not only 'Bonchoseo - original plants book' but also agricultural books, books of the same kinds and private books.

## 3. Result of study

- 1) A mellow has been changed its inscribed name from 'Abushil' to 'A-uk', to 'A-ok', to 'A-uk'. And a winter mellow is called as 'Dol-a-uk' which means the thing is changed a year.
- 2) The heliotropism of mellow has been used as the symbol of the loyalty and the intelligence. Its meaning has been interpreted expansively engaging with the heliotropism of a hollyhock, a Darkpull, and a sunflower.
- 3) Once 'Darkpull' had been recognized as 'one day flower'. But after sunflower come, people have confused and misread 'Darkpull' by 'Sunflower'.
- 4) The first record of sunflower among the existing bibliographical documents is "Chung-jang-gam-chun-seo" (1795). And It is presumed that the sunflower had introduced in Korea at the early to mid of the eighteen century.
- 5) The interpretation for mellow has been made a confusion by a several documentary and dictionary record, but should be corrected to be right.

key words : Mellow-'A-uk', hollyhock, 'Darkpull', sunflower, one day flower, 'Gue-hwa'

# 국문초록

## 1. 연구 목적

四象醫學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체질진단, 약물치료와 아울러 정신과 육체의 균형 및 조화라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자들간의 체질음식에 대한 異見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중요한 식품에 대한 역사적 유래, 특성, 효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사상체질 식이요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百菜之上라 할 수 있는 아욱(葵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만 국이나 찌개에 넣어 食用되고 있다. 이러한 아욱은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와 같이 공통적으로 이름에 葵가 들어가고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고찰하였다. 특히 해바라기에 대한 문헌정리가 없는 학계에 해바라기 도입연대를 추정하고 쫓을 해바라기로 오역함에 따른 폐단을 정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本草書 뿐만 아니라 農書, 類書, 개인문집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① 葵菜는 '阿夫實 → 阿都 → 아욱(아혹) → 아욱의 표기변천을 거치며, 冬葵를 돌아욱이라하는 까닭은 해를 넘기는(돌) 아욱이라는 뜻이다.
- ② 아욱의 向日性은 충과 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蜀葵 黃蜀葵 向日葵의 向日性과 맞물려 확대해석하기에 이르렀다.
- ③ 黃蜀葵(닥풀)를 一日花(일일화)로 보았으나 해바라기가 도입된 이후 黃蜀葵와 해바라기를 혼동하여 닥풀을 해바라기(向日花)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였다.
- ④ 현존하는 문헌 중 해바라기에 대한 최초기록은 『靑莊館全書』(1795)이며 1700년대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일부 사전류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하여 쫓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가져왔으나 이는 바로 잡아져야만 한다.

검색어 : 아욱(葵),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 向日花), 일일화, 규화.

## I. 서 론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진 아욱(葵菜)은 '동양의 채소'라 할 수 있는데,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와 같이 向日性의 특징이 있으며 명칭에 쫓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쫓은 아욱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최근 일부 한문사전에서 쫓을 해바라기roman만 번역하는 바람에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문헌에 나오는 쫓을 해바라기로 오역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葵菜, 蜀葵, 黃蜀葵, 向日葵에 대한 문헌정리를 통하여 잘못된 오역을 바로 잡고자 하며, 해바라기에 대한 도입연

대가 정리되지 않은 학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사상체질 식이요법에 대한 기초자료정리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욱이 소양인 식품의 경향성을 띄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아 욱(葵菜)

아욱의 재배연대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3000여년

전의 글을 모은 『詩經』에 '7월에 아욱과 콩을 삶는다'라는 글이 나오고, 醫書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靈樞經』에 '五菜는 부추(韭) 염교(薤) 아욱(葵) 파(葱) 콩잎(菹)이다.'<sup>2)</sup>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욱은 동양에서는 有史 이전부터 재배된 작물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남북조시대 華北에 세워진 魏나라(386~534)의 역사를 적은 『魏書』에 勿吉國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욱이 나온다. '勿吉國은 高句麗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옛 肅慎國이다. 조, 보리, 기장 등이 있으며 채소로는 아욱이 있다.'<sup>3)</sup>라 하여 고구려가 있는 한반도에도 아욱이 재배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1) 아욱의 명칭에 대한 의미

아욱은 露葵, 滑菜, 衛足, 陽草 등으로 불려지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아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露葵는 아욱의 이슬(露)이 다 마르길 기다렸다가 아욱을 채취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滑菜는 아욱의 성질이 매끄

럽기(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sup>4)</sup> 衛足은 向日性이 있는 아욱의 잎이 뿌리를 햇빛에서 보호하는 특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sup>5)</sup> 陽草는 해(陽)를 향하는 풀(草)이라는 뜻이다. 또한 작은 아욱을 鴨脚葵, 薺, 丘葵라 호칭하기도 하였다.<sup>6)</sup>

한편 아욱을 破屋草 또는 破樓菜<sup>7)</sup>라 하기도 하였는데, 趙在三(1808~1866)은 '陰痿증상이 있던 사람이 아욱국을 먹고 나서 그날 밤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평소의 배나 하였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집을 허물고 아욱을 심었기 때문에 破屋草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sup>8)</sup>라 하여 房事에 좋음을 이름에 나타내고 있다. 西王母菜<sup>9)</sup>라고도 하였는데 같은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王禎의 『農書』(1313)에 의하면 아욱은 百菜之主라 할 수 있다. 사시사철의 반찬이 되며 뿌리의 기운이 왕성하여 가뭄에 강하다. 먹고 남은 것으로 김치를 만들 수 있으며 씨와 뿌리도 약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따라서 채소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0)</sup>

아욱에 대한 우리 나라 명칭은 <표 1>에서 보이

- 1) 『詩經』, 「邶風〈七月〉」, 七月亨葵及菹. 일부 사전에서는 葵를 해바라기로 보고 있으나 이는 아욱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2) 『靈樞經』, 「五味」, 五菜 葵甘 韭酸 薤鹹 薤苦 葱辛.
- 3) 魏收, 『魏書』, 「勿吉」,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 (中略) 有粟及麥稷 菜則有葵.
- 4) 李時珍, 『本草綱目』, 「葵」, 古人採葵 必待露解 故曰露葵 今人呼爲滑菜 言其性也.
- 5) 徐有渠, 『林園經濟志』, 「葵」, 衛足 滑菜 言其性也.
- 6) 柳僖, 『物名考』, 「鴨脚葵」, 葵之最小者. 薺 丘葵 同.
- 7) 張混, 『蒙喻篇』, 「草木」, 葵菜. 〇옥 破樓菜.
- 8) 趙在三, 『松南雜識』, 「冬葵」, 俗謂葵爲破屋草 諺傳有陰痿人 食葵羹 其夜敦倫倍勝 厥朝妻毀屎 而種之故也.
- 9) 張志淵(1864~1921), 『菜蔬栽培全書』, 「葵」, 俗名(아욱)이니 一名露葵오 (中略) 又曰西王母菜니 百菜之主也라.
- 10) 王禎, 『農書』, 「葵」, 按葵爲百菜之主 備四時之饌 本豐而耐旱 味甘而無毒 供食之餘可爲筮腊 枯耕之遺可爲榜簇 子若根則能療疾 咸無棄材 誠蔬茹之上品 民生之資助也.

〈표 1〉 아욱(葵菜)과 접시꽃(蜀葵)의 표기변천

	아욱(M verticillata L)	접시꽃(A rosea Cav)
證類本草(1108)(宋)	冬葵子	蜀葵(錦葵, 戎葵)
鄉藥救急方(1236)	葵子 阿夫賈(冬葵子)	
鄉藥採取月令(1431)	冬葵子 同阿郁	
鄉藥集成方(1433)	冬葵子 鄉名阿郁	蜀葵 卽葵花
救急簡易方(1489)	冬葵子 돌아혹씨(葵子 아혹씨, 冬葵根 돌아혹불휘, 葵根 아혹불휘)	蜀葵子 누른규화씨
訓蒙字會(1527)	葵菜 아욱	葵 규화 圭(莢)
新增類合(1574)	葵 아혹 규	
本草綱目(1590)(明)	葵(露葵, 滑菜)	蜀葵(戎葵, 吳葵, 錦葵)
東醫寶鑑(1613)	冬葵子 돌아욱씨	紅蜀葵 붉근꽃피는규화
佩文齋廣郡芳譜(1708)(淸)	葵(藟, 丘葵, 陽草, 鴨脚葵, 露葵, 滑菜, 衛足)	蜀葵(戎葵, 吳葵, 一丈紅)
山林經濟(1715)	冬葵 아욱 冬葵子 돌아욱씨	蜀葵 규화(葵花)
同文類解(1748)	葵菜 아욱	葵花 규화
增補山林經濟(1766)	冬葵 아욱	葵花(蜀葵)
蒙語類解(1768)	葵菜 아욱	葵花 규화
譯語類解(1775)	葵菜 아혹	葵花 규화
本史(1787)	葵 俗名莢菽沃	蜀葵(蔚, 戎葵, 吳葵)
靑莊館全書(1795)	葵 아욱(鴨脚葵, 冬葵)	蜀葵(戎葵, 吳葵, 胡葵, 莢)
物譜(1802)	아욱(冬葵, 滑葵)	蜀葵花 규화
蒙諭(1810)	葵菜 ㄹ욱(破樓菜)	蜀葵花 규화
閩閩叢書(1815)	규치(아욱)	촉규화(일장홍)
林園經濟志(1827)	葵(衛足, 滑菜, 鴨脚葵)	蜀葵(戎葵, 一丈紅)
物名考(1830)	露葵 아욱(滑菜, 陽草, 鴨脚葵, 藟, 丘葵, 冬葵)	蜀葵 규화(戎葵, 蔚)
廣才物譜(미상)	葵 아욱(露葵, 滑菜, 陽草)	蜀葵 촉규화(蔚, 戎葵, 吳葵, 胡葵)
松南雜識(1855)	冬葵(陽草, 滑葵, 破屋草)	蜀葵花(一丈紅, 錦葵, 戎葵, 錢葵, 蔚)
字類註釋(1856)	葵 아욱 규(히발아기 규)	
月餘農歌(1861)	滑葵 아욱(冬葵)	
醫宗損益(1867)	冬葵子 아욱씨(露葵)	葵花 규화
方藥合編(1885)	冬葵子 아욱씨(露葵)	葵花 규화
良方金丹(미상)	冬葵子 돌아욱씨	紅蜀葵 붉근꽃규화
物名括(미상)	冬葵 아욱(滑葵, 齊)	
字典釋要(1909)	葵 아욱 규(해바라기 규)	蜀 풀일흙 촉
菜蔬栽培全書(1909)	葵 아욱(露葵, 滑菜, 鴨脚, 終葵, 繁露, 西王母菜)	蜀葵 촉규화(戎葵, 吳葵, 蔚, 胡葵)
朝鮮語辭典(1949)	露葵 아욱	蜀葵 해바라기(德頭花)

듯이 '阿夫(아부)<sup>11)</sup> → 阿郁(아옥), 아혹, 으옥 → 아옥'으로의 용어변천을 거치는데, 『鄉藥救急方』(1236)의 경우 葵子와 冬葵子를 설명하면서 葵子를 항상 먹는 아부(阿夫)의 씨(實)라 하였다.<sup>12)</sup> 여기에서의 阿夫는 아옥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선초에 간행된 『鄉藥採取月令』(1431), 『鄉藥集成方』(1433)에서 阿郁으로 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訓蒙字會』(1527)의 경우 葵를 아옥과 규화(접시꽃)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sup>13)</sup> 조선후기에 나온 『字類註釋』(1856)<sup>14)</sup>과 『字典釋要』(1909)<sup>15)</sup>에서는 葵를 아옥과 해바라기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해바라기가 도입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아옥은 심는 시기에 따라 春葵, 秋葵, 冬葵로 구분되는데<sup>16)</sup> 冬葵의 성질이 가장 滑利하기 때문에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sup>17)</sup> 우리 나라에서는 <표 1>에서 보이듯이 冬葵를 돌아옥(돌아혹, 돌아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冬葵가 겨울을 지나 햇수로는 1년이 넘게되므로 해를 넘긴(돌) 아옥이라는 뜻으로 돌

아옥이라 하였다.

## 2) 아옥의 특징과 向日性에 대한 의미

李時珍(1518~1593)은 아옥의 形狀에 대하여 '紫莖과 白莖이 있는데 白莖이 좋다. 잎은 크고 꽃은 작는데 紫黃色이다. 가장 작은 것을 鴨脚葵라 한다. 열매는 크기가 손가락 끝만 하고 껍질은 얇고 편평하다. 열매 속의 씨는 가벼워서 榆莢仁같다.'<sup>18)</sup>라 하였다. 하지만 白莖이 紫莖보다 좋은 까닭이 설명되지 않으며 현재의 아옥에서 구분되기가 어렵다.

아옥이 잘 자라는 토질에 대하여 洪萬選(1643~1715)은 '아옥은 비옥한 땅을 좋아한다. 척박하면 거름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옛 집터가 좋다고 하는 것이다.'<sup>19)</sup>라 하였다.

아옥의 특징으로 '아옥의 잎은 해를 향해 기울어져 햇빛으로 하여금 그 뿌리에 비추지 않게 하니 이는 지체로서 근본을 헤아리는 것이다.'<sup>20)</sup>라 하여 아옥의 向日性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한문사전이라 할 수 있는 『爾雅』에 의하면 '向日性이 있는

11)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1981 : 48쪽.

12) 『鄉藥救急方』, 「方中鄉藥目」, 葵子 常食阿夫實也. 冬葵子 味甘寒無毒 秋種葵 至春作子 古今方 入藥最多.

13) 崔世珍, 『訓蒙字會』, 「葵」, 아옥 규. 葵菜 又花名見上. 「葵」, 규학 규. 亦呼取 又見下.

14) 鄭允容, 『字類註釋』, 「葵」, 아옥 규 陽草 百菜之主 四時之饌 又呼발아기 규 傾葉向日 不照其根 能衛足 又終葵 圭上葵首也.

15) 池錫永, 『字典釋要』, 「葵」, 菜名 아옥 규. 向日花 해바라기 규. 「蜀」, 草名 蜀葵 풀일흙 축.

16) 李時珍, 『本草綱目』, 「葵」, 四五月種者 可留子 六七月種者爲秋葵 八九月種者爲冬葵 經年收採 正月後種者爲春葵.

17) 唐慎微, 『經史證類備急本草』, 「冬葵子」, 陶隱居 云以秋種葵 覆養經冬 至春作子 謂之冬葵 多入藥用 至滑利 能下石 春葵子亦滑 不堪餘藥用根 故是常葵爾.

18) 李時珍, 『本草綱目』, 「葵」, 有紫莖白莖二種 以白莖爲勝 大葉小花 花紫黃色 其最小者名鴨脚葵 其實大如指頭 皮薄而扁 實內子輕虛如榆莢仁.

19) 洪萬選, 『山林經濟』, 「種冬葵」, 地不厭食 薄則糞之 故墟稱善.

20) 李時珍, 『本草綱目』, 「葵」, 葵葉傾日 不使照其根 乃智以揆之也.

葵(아욱)는 揆(헤아린다)의 의미가 있다.<sup>21)</sup>고 보았기 때문에 葵를 '헤아린다'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詩經』의 '樂只君子 天子葵之'의 문장을 '즐거운君子여 天子가 헤아린다.'로 번역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후대에 와서는 이러한 아욱의 向日性을 더욱 확대 해석해 忠과 智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았다.<sup>22)</sup>

### 3) 아욱에 효능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神農本草經』에 '冬葵子是 甘寒한데 오장육부의 寒熱로 수척해진 몸과 五癆를 치료하며 소변을 잘 내보낸다. 長服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을 찌우며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sup>23)</sup>라 하여 腎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本草經疏』(1625)에서는 '冬葵(아욱)는 瘧과 冬의 뜻을 따라 만든 글자인데 모두 腎에 속하고, 씨가 잘 생기므로 임신과 출산에 관계한 질환을 치료한다. 그리고 꽃이 태양을 향하여 기울어지므로 근본을 되돌아보고 지키는 뜻이 있으며, 소변을 잘 내보내고 多尿症을 잘 치료하는 것을 보

면 그 뜻을 알 수 있다.'<sup>24)</sup>라 하여 아욱의 글자와 성품을 미루어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葵는 十干중의 마지막 순서인 癸와 草(艸)가 합쳐진 것인데, 癸는 마침과 시작의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sup>25)</sup> 따라서 脾大腎小한 少陽人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는데<sup>26)</sup> 이는 補腎기능이 있는 冬葵子の 품성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욱은 매끄러우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東醫寶鑑』에 '冬葵子(아욱씨)는 五淋을 다스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五臟六腑의 寒熱을 없애주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안에서 막힌 것을 다스린다.'<sup>27)</sup>라 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冬葵子の 이뇨작용이 소양인의 열을 清熱시켜 기운을 맑게 하는 기전으로 이해된다.

아욱의 미끄러운 성질을 이용하여 잘못 먹은 동전을 나오게도 하는데, 또한 『東醫寶鑑』에 '어린아이 가 동전을 삼켜서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아욱즙을 삶아 차갑게 먹이면 즉시 나오는데, 뿌리·잎·씨도 같은 효과가 있다.'<sup>28)</sup>라 하였다. 이후에 나온 우리 나라 醫書에서는 『東醫寶鑑』의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로

21) 郭璞 註, 『爾雅』, 葵 揆也(詩曰天子揆之)

22)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葵有忠智」, 葵能向日 謂之忠 可也 葵能衛足 謂之智 可也.

23) 吳晉 等述, 孫星衍 輯, 『神農本草經』, 「冬葵子」, 味甘寒 主五臟六腑 寒熱羸瘦 五癆 利小便 久服堅骨 長肌肉 輕身延年.

24) 繆希雍, 『本草經疏』, 「冬葵子」, 盧芷園曰 葵有多種 冬茂者曰冬葵 字從葵從冬 皆屬於腎 其子易生 用治胎產 自然入神 其花向日而傾 有返顧衛根之義 觀其能通小便 又能治多溺 蓋可見矣.

25) 徐命應, 『本史』, 「葵」, 或云 天有十干 葵與之終始 故字從草從癸 亦通.

26) 김달래, 『한 의사 김달래의 체질따라 약이 되는 음식 224』, 경향신문사, 1996 : 71-72쪽.

27) 許浚, 『東醫寶鑑』, 「冬葵子」, 돌아욱씨 性寒(一云冷)味甘無毒 治五淋 利小便 除五臟六腑寒熱 婦人乳難內閉 ○秋種葵覆養 經冬至春 作子謂之冬葵 多入藥用 性至滑利 能下石 春葵子亦滑 然不堪藥用 ○霜後葵不可食 動痰吐水 ○子微炒碎用(本草)

28) 許浚, 『東醫寶鑑』, 「誤吞諸物」, 小兒吞錢不出 煮葵汁冷飲即出 根葉子同功(本草)

정리되어 있다.<sup>29)</sup>

『本草從新』(1757)의 경우 冬葵子の 甘寒하고 매끄러운(滑) 품성으로 인한 潤燥작용으로 인하여 막힌 것을 뚫어 주는 작용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通潤腸利竅로 요약하고 있다.<sup>30)</sup> 이는 冬葵子が 少陽人의 熱性으로 인한 변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增補山林經濟』(1766)에서는 '아욱은 臟腑寒熱을 다스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霜降이후에는 많이 먹어서는 않된다. 天行病후에 먹으면 눈을 상하는데 붓어죽으로 치료한다.'<sup>31)</sup>라 하였다.

이와 같이 아욱을 冬葵子라는 약재로 동양에서 사용하였지만 채소로서 국을 끓여 먹는 방법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없고 우리 나라에서만 발달하였다.<sup>32)</sup> 왜 이러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는 지에 대하여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 2. 蜀葵(접시꽃)

### 1) 접시꽃의 명칭과 성질

〈표 1〉에서 보이듯이 蜀葵(접시꽃)(*Althaea rosea* Cav)는 一丈紅, 錦葵, 戎葵, 錢葵, 吳葵, 蒹, 胡葵, 葭 등의 異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로는 촉규화 또는 규화라 하였다. 一丈紅은 紅色의 꽃을 피는 것을 지칭하고 있으며, 錦葵와 戎葵는 같은 것으로 꽃이 적고 잎이 둥근 것을 지칭하며, 錢葵는 높이가 낮은 것을 지칭한다.<sup>33)</sup> 한편 池錫永(1855~1935)은 접시꽃을 蜀葵대신 薔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sup>34)</sup>

李時珍(1518~1593)은 접시꽃의 형상에 대하여 '접시꽃(蜀葵)은 人家 곳곳에 심는데 초봄에 씨를 심는다. 겨울을 지난 宿根에서도 싹이 나오는데, 연한 싹은 먹을 수 있다. 잎은 아욱잎과 비슷하나 크며, 수세미잎과 비슷하나 分岐가 있다. 小滿(5월 21일)이 지난 후에는 줄기높이가 5~6尺에 달한다. 꽃은 무궁화와 비슷하나 크며, 深紅色, 淺紅色, 紫色, 黑色, 白色이 있다. 약에는 紅色, 白色만을 쓴다. 열매 크기는 指頭같고 껍질은 얇고 편평하다. 內仁(속의 씨)은 馬兜鈴과 느릅나무 열매를 닮았다.'<sup>35)</sup> 하지만

- 
- 29) 黃度淵, 『醫宗損益』, 「冬葵子」, 寒 治癰即安 滑胎易產 善通乳難. 아욱씨. 一名露葵. (葉)脾之菜也 宜脾胃 霜後不可食 動痰.
  - 黃度淵, 『方藥合編』, 「冬葵子」, 寒 治癰方 滑胎易產 通乳房. 아욱씨. 一名露葵. (葉)脾之菜也 宜脾胃 霜後不可食 動痰.
  - 韓秉璉, 『醫方新鑑』, 「冬葵子」, 寒 利脾胃氣 治癰閉 滑胎產.
  - 30) 吳儀洛, 『本草從新』, 「冬葵子」, 甘寒淡滑 潤燥利竅 通營衛 行津液 利二便 消水腫 用榆皮等分煎 通關格 下乳滑胎.
  - 31)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冬葵」, 治臟腑寒熱 利小便 霜後不可多食 若患天行病後食之 頓傷目 惟鯽魚臠解之.
  - 32)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葵」, 古人이 以葵로 爲蔬菜上品 而今支那及他國人은 未聞有茄葵者호고 惟我國人은 今尙以此爲菜茹羹臠 則味甚柔滑甘美호니라.
  - 33) 趙在三, 『松南雜識』, 「蜀葵花」, 紅者號一丈紅. 又錦葵即戎葵 花小葉圓 又錢葵莢低.
  - 34) 池錫永, 『字典釋要』, 「蜀」, 草名 薔葵 풀일흙 촉.
  - 35) 李時珍, 『本草綱目』, 「蜀葵」, 時珍曰 蜀葵處處人家植之 春初種子 冬月宿根亦自生 苗嫩時亦可茹食 葉似葵葉而大 亦似絲瓜葉有岐 又過小滿後 長莖高五六尺 花似木槿而大 有深紅淺紅紫黑白色 (中略) 有紅白二色入藥 其實大如指頭 皮薄而扁 內仁如馬兜鈴仁 及蕪荑仁.



'씩을 오랫동안 먹으면 개에 물린 듯 정신이 둔하게 되는데 잘 낫지 않는다.'<sup>36)</sup>라 하여 長服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접시꽃에 대하여 형상을 설명하였지만 아욱(葵)과 접시꽃(蜀葵)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혹 혼동하여 서술되기도 하였다.<sup>37)</sup> 따라서 문헌에 따라 구분을 잘 하여야 한다. 한편 접시꽃의 꽃도 아욱과 같이 向日性이 있어<sup>38)</sup> 忠誠心을 나타내는 문장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2) 접시꽃의 효능과 이용

접시꽃의 꽃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백색꽃은 白帶下, 적색꽃은 赤帶下에 쓸 수 있다고 『證類本草』(1108)에서 『太平聖惠方』(992)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sup>39)</sup>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醫書에서도 이를 따랐는데,<sup>40)</sup> 중국에서 나온 『本草從新』(1757)에서는 赤白帶下 뿐만 아니라 백색꽃은 氣燥, 적색꽃은 血淋關格까지 치료한다고 보았다.<sup>41)</sup>

張志淵(1864~1921)은 접시꽃의 쓰임을 부위별

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根莖은 利小便 散膿血하며, 씨는 淋病을 치료하며, 꽃은 帶下를 치료하고 金針을 잘못 먹었을 때 사용한다.'<sup>42)</sup>

한편 접시꽃 잎의 즙을 먹여 빛이 푸르고 윤택이 나는 종이(葵牋)를 만들었는데, 『山林經濟』(1715)에 '白香山(唐나라 시인)은 항상 葵牋을 사용하였는데 綠色이 윤택하여 먹이 들어가면 精采가 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 방법은 이슬 먼 접시꽃을 따다가 짓뭉어 즙을 내서 그 즙으로 종이 위를 문지르고 약간 마른 다음 돌로 눌러 놓는다.'<sup>43)</sup>라 하였다.

## 3. 黃蜀葵(닥풀)

### 1) 닥풀의 모양과 異名

黃蜀葵는 <표 2>에서 보이듯이 側金盞花, 黃蜀花, 黃葵, 秋葵, 衛足葵 등으로 불려졌고 우리 나라에서는 一日花(일일화)라 호칭되어졌다.

黃蜀葵(닥풀)는 蜀葵(접시꽃)와 비슷하여 노란색

36) 李時珍, 『本草綱目』, 「蜀葵」, 思邈曰 其苗不可久食 鈍人志性 若被狗齧者 食之永不癒.

37) 劉瀾, 『佩文齋廣羣芳譜』, 「葵」, 葵與蜀葵二種 原譜誤合爲一 今分葵入蔬譜 蜀葵等另入花譜.

38)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葵花」, 二月 以葵子置水中 高撒於地種之則生 枝幹亦高 花傾日.

39) 唐慎微, 『證類本草』, 「蜀葵」, 聖惠方 治婦人白帶下 臍腹冷痛 面色痿黃 日漸虛困 以白葵花一兩陰乾爲末 空心溫酒下二錢匕 如赤帶下用赤花.

40) 許浚, 『東醫寶鑑』, 「紅蜀葵」, 붉근꽃피는 규화〔花〕有赤白 赤者治赤帶 白者治白帶 赤治血 白治氣<本草>

黃度淵, 『醫宗損益』, 「葵花」, 味甘 帶痢兩功 赤治赤者 白治白同. 규화(子根)同功 主利小便五淋.

黃度淵, 『方藥合編』, 「葵花」, 味甘 帶痢劇 赤治赤者 白治白. 규화(子根)同功 主利小便五淋.

韓秉璉, 『醫方新鑑』, 「葵花」, 甘 能治帶痢 赤治赤 白治白.

41) 吳儀洛, 『本草從新』, 「冬葵子」, 蜀葵花凡赤者 治赤帶 白者治白帶 赤者治血燥 白者治氣燥 亦治血淋關格 皆取其寒潤滑利之功.

42)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蜀葵」, 根莖은 利小便散膿血하고 子는 治淋하며 花는 治婦人帶下及誤吞金針하나라.

43) 洪萬選, 『山林經濟』, 「搥紙」, 白香山 常用葵牋 綠色而澤 入墨覺有精采 其法 採帶露蜀葵葉研汁 用布揩抹紙上 俟少乾 用石壓之.

蜀葵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다.<sup>44)</sup> 따라서 李時珍은 黃蜀葵의 형태에 대하여 '잎 크기는 蓖麻葉과 비슷하고 질은 녹색이다. 5갈래의 分岐가 있으며 6월에 주발(梳)만한 꽃이 피는데 鶯黃色이며 6개의 편편한 꽃잎이 있다. 아침에 꽃이 피고 점심에 수그러들며 저녁에 떨어지니 側金盞花이라 부르기도 한다. 깎지는 엄지손가락같이 크며 2寸정도이다. 중심은 크고 끝은 예리한데 6개의 모서리에 털이 있으며 오래되면 黑色으로 된다. 모서리가 터지면 안에 6개의 방이 있는데 참깨와 비슷하다. 열매는 茴麻子와 같으며 흑색이다. 줄기는 6~7尺에 달한다.'<sup>45)</sup>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廣才物譜』, 『菜蔬栽培全書』에서 黃蜀葵를 해바라기(히바라기, 히바라기)라 하면서 向日花라 하여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黃蜀葵(일일화, 닥풀)의 성질이 향일성이 있으며 매일 꽃이 피고 지니 이를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는 뜻으로 해바라기라 호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대륙에서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向日性이 있는 일일화(닥풀)를 해바라기로 보았을 수도 있으나 <표 2>에서 보이듯이 중국의 해바라기 최초

문헌인 『廣羣芳譜』(1708)이전의 문헌에서 일일화는 보이지만 해바라기는 보이지 않아 새로운 문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째, 해바라기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sup>46)</sup>의 문헌에서만 黃蜀葵와 해바라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아 도입된 해바라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黃蜀葵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菜蔬栽培全書』에서 黃蜀葵를 해바라기(向日花)라 하여 설명하고 있는 문장<sup>47)</sup>이 『本草綱目』에서 말한 黃蜀葵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셋째, 向日性이 있는 식물을 해바라기(向日花)로 호칭하였다가 미대륙에서 수입된 해바라기(Hibiscus L)를 해바라기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처음에 해바라기는 黃蜀葵, 蜀葵 등을 지칭하는 의미였으나 후에 지칭하는 바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 2) 닥풀의 이용

黃蜀葵는 黃葵花 또는 一日花로 불려지던 닥풀(Hibiscus manihot L)로서 뿌리에 약 16%의 점액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韓紙를 만드는데 접착제

44) 李時珍, 『本草綱目』, 「黃蜀葵」, 宗奭曰 黃蜀葵與蜀葵別種 非是蜀葵中黃者也.

45) 李時珍, 『本草綱目』, 「黃蜀葵」, 葉大如蓖麻葉 深綠色 開岐了 有五尖如人爪形 旁有小尖 六月開花大如梳 鶯黃色 紫心六瓣而側 且開午收暮落 人亦呼爲側金盞花 隨即結角大如拇指 長二寸許 本大末尖六稜有毛 老則黑色 其稜自綻 內有六房如芝麻房 其子累累在房內狀如茴麻子色黑 其莖長者六七尺.

46) 해바라기의 도입연대에 대하여 뒤에 자세히 논술하고 있는데, 1700년대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국내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7)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黃蜀葵」, 俗名(히바라기)니 卽向日花也라 苗葉이 似蜀葵 而葉이 尖狹多刻缺하고 又似蓖麻葉호야 深綠色이오 開岐有五尖을 如人爪形호고 旁有小尖호며 六月에 開花大如梳이오 鶯黃色이오 紫心六瓣而側호야 朝開午收호니 亦呼爲側金盞花라호며 隨即結角이 大如拇指호야 長二寸許오 本大末尖호며 六稜有毛호고 老則黑色이오 其稜이 自綻호야 內有六房이 如芝麻房호고 其子는 累累在房內를 如茴麻子오 其莖이 長者六七尺이니 剝皮可作繩이오 子可染黃이며 花治石淋難産호니라.

〈표 2〉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의 표기변천

	닥풀(H manihot L)	해바라기(H annuus L)
證類本草(1108)(宋)	黃蜀葵	
鄉藥採取月令(1431)	黃蜀葵花(卽黃蜀花 又名一日花)	
鄉藥集成方(1433)	黃蜀葵花(卽黃蜀花 又名一日花)	
本草綱目(1590)(明)	黃蜀葵(側金盞花)	
東醫寶鑑(1613)	黃蜀葵花 일일화	
佩文齋廣都芳譜(1708)(淸)	秋葵(側金盞, 黃葵, 黃蜀葵)	西番葵
本史(1787)	黃蜀葵 俗名一日花(側金盞花)	
靑莊館全書(1795)		黃葵 히날아기(黃蜀葵, 秋葵, 向日葵)
物譜(1802)		向日蓮 히날라기
蒙諭(1810)		蜀葵花 히바라기(向日花)
林園經濟志(1827)	秋葵(側金盞)	
物名考(1830)	黃蜀葵 일일화(日日花, 側金盞, 衛足葵)	
廣才物譜(미상)	黃蜀葵 히바라기(黃葵, 向日花, 側金盞花)	
松南雜識(1855)		向日花(唐向日花) ?
字類註釋(1856)		葵 히발아기 규
良方金丹(미상)	黃蜀葵花 일일화	
字典釋要(1909)		葵 해바라기 규(向日花)
菜蔬栽培全書(1909)	黃蜀葵 히바라기(向日花, 側金盞花)	
農學新書(1909)		玉菊(向日花)
朝鮮語辭典(1949)		해바라기(葵藿, 葵花, 向日花)
辭源(1993)(中)	黃蜀葵	向日葵

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韓紙(조선종이)는 닥나무(楮)나 삼지닥나무(三枝楮) 껍질을 삶아 內皮부분만 가려낸 다음 끈적거리는 닥풀뿌리즙을 섞으면 紙液이 되어 종이가 되는 것이다. 또한 黃蜀葵의 줄기의 껍질을 얇게 벗겨 노끈을 만들 수 있으며, 씨는 노란색의 염료로 사용하며, 꽃은 石淋과 難産을 치료

한다.<sup>48)</sup>

#### 4. 向日葵(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는(向日) 것'이라는 뜻으로 태양을 향하는 식물로 인식하여 만들어진 언어기호

48) 張志淵, 『菜蔬栽培全書』, 「黃蜀葵」, 其莖이 長者六七尺이니 剝皮可作繩이오 子可染黃이며 花治石淋難産한 나라.

임을 의미한다.<sup>49)</sup> 이는 해바라기의 품성을 이해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향일성이 있는 아욱, 접시꽃, 닥풀과의 혼동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바라기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잘못 이해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해바라기의 도입과정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L)는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하여 발견되어 스페인사람들에 의해 유럽에 전해진 것이다.<sup>50)</sup> 1569년 스페인의 모나르네스가 쓴 『植物誌』에 해바라기(황금의 꽃)가 소개되었고 동양에는 100여년이 지난 다음에 전래되었다한다.<sup>51)</sup>

현재 해바라기에 대한 중국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진 『廣羣芳譜』(1708)에 서쪽 오랑개 땅(西番)에서 들어온 葵라는 뜻으로 西番葵라 하여 '즐기는 대나무와 같으며 어른 키(一丈)보다 크다. 잎은 蜀葵와 비슷하지만 크고 花托은 연꽃과 비슷하지만 편평하며 2~3尺정도 한다. 꽃은 黃色이며 씨는 피마자과 비슷하지만 편평하다. 임신부는 下焦를 가볍게 하여 낙태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sup>52)</sup>라고 소개되어 있다.

### 2) 해바라기에 대한 국내기록

현재 해바라기가 언제 국내에 도입됐느냐에 대하여 정리가 된 바가 없으나 <표 2>의 정리한 바에 의하면 1700년대 초반 내지 중반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논의를 후대에 나온 해바라기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필자에 의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해바라기에 대한 국내 최고의 문헌은 李德懋(1741~1793)의 『靑莊館全書』(1795)로 보아야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 苜蓿(黃葵)를 화분에 심었더니 즐기는 麻 같고 잎은 패모같았다. 즐기 끝에 노란 꽃이 피었는데 가운데가 조밥같고 곱지는 않았다. 해를 따라 동서로 움직이는데 목이 굵어 담뱃대 같았고 한낮에는 위를 향하였다. 내가 시험삼아 동쪽을 향하기를 기다렸다가 화분을 돌려 서쪽으로 향하도록 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 죽었다. 이와 같이 物의 本性은 빼앗기 어려운 것이다.'<sup>53)</sup>라 하였는데 李德懋가 어렸을 때 이미 해바라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1700년대 중반이전부터 해바라기가 심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덕무는 黃蜀葵(닥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해바라기의 일종으로 바라보았다.

『物譜』(1802)는 이익(1681~1763)의 증손 이철환(1722~1780)이 모은 자료를 그 아들 이재위(1755~1825)가 엮은 책이다. 해바라기(苜蓿라기)

49) 李秉根, 「해바라기(向日葵)의 語彙史」, 『冠嶽語文研究』, 22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50) 林雄圭, 『資源植物學』, 先進文化社, 1983 : 133-134쪽.

임응규 외, 『자원식물학』, 書一, 1997 : 208-209쪽.

51) 沈相龍, 『漢方食療解典』, 創造社, 1976 : 559-560쪽.

52) 劉灝, 『佩文齋廣郡芳譜』, 「西番葵」, 西番葵 莖如竹 高丈餘 葉似蜀葵而大 花托圓二三尺如蓮房而扁 花黃色 子如荳蔻子而扁 孕婦忌 輕其下 能墮胎.

53) 李德懋, 『靑莊館全書』, 「葵」, 余兒時種黃葵 俗名苜蓿(黃葵)于盆 莖如麻 葉如苜 莖端開黃花 心如粟飯 不甚鮮 艷 隨口東西 而項曲如烟盃 正午則昂 余試俟其向東 移盆向西 食傾萎死 物性之難奪如此.

가 向日葵로 표기되어 있어 형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중국최초의 해바라기 기록이 있는 『廣羣芳譜』(1708)의 출간연대를 미루어 보면 해바라기가 적어도 이철환 생존시인 1700년대 중반 이전임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해바라기의 국내도입연대는 중국의 최초문헌이 1708년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는 1700년대 초기 내지 중기임을 추측할 수 있다. 좀더 정확한 연대는 後學의 연구를 기대할 따름이다.

『蒙諭』(1810)에서는 해바라기(向日葵)가 向日花란 설명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蜀葵花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蜀葵花(접시꽃)는 <표 1>에서 보이듯이 규화를 의미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바라기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새로운 해바라기 품종이 180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음을 암시하는 문장이 『松南雜識』(1855)에 나온다. '중국에서 새로운 向日花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唐向日花라 한다.'<sup>54)</sup>라 하였는데, 向日花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해바라기와 다른 식물을 착각한 듯하다. 左傳과 曹植의 문장을 들었지만 이는 아욱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씨앗에 독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해바라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sup>55)</sup> 따라서 『松南雜識』의 向日花를 해바라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1800년대 중반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廣才物譜』에 해바라기(向日葵)가 나오는데, 黃蜀葵, 黃葵, 向日花, 側金盞花와 같은 것으로 '잎은 蓖麻葉같이 크고 줄기는 6~7尺이며 꽃은 주발(椀)크기이며 鶯黃色이다. 6개의 편편한 꽃잎이 있으며 아침에 꽃이 피고 점심에 수그러들며 저녁에 떨어진다. 열매는 齒麻子와 같다.'<sup>56)</sup>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本草綱目』에서 黃蜀葵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廣才物譜』에서 해바라기(向日葵)를 黃蜀葵와 동일시 보았던 것은 해바라기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소치라 하겠다.

『字類註釋』(1856)<sup>57)</sup>과 『字典釋要』(1909)<sup>58)</sup>에서는 葵를 아욱과 해바라기로 번역하고 있는데, 『字類註釋』에서 말한 해바라기(向日葵)에 대한 설명이 '傾葉向日 不照其根 能衛足'<sup>59)</sup>라고만 하고 있다. 이는 보통 아욱을 설명하는 문장이지만<sup>59)</sup> 해바라기가 도입된 이후 해바라기의 向日性을 이해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字典釋要』에서 말한 해바라기(向日葵)는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의 식물도감에 나오는 해바라기 그림과 동일하다.

張志淵은 『農學新書』(1909)에서 『農政新書』(1881)를 인용하면서 玉莢를 언급하고 있다. 玉莢를 우리 나라에서는 向日花라 지칭하고 있으며 염료

54) 趙在三, 『松南雜識』, 「向日花」, 近有一種自中朝來 謂唐向日花。  
 55) 趙在三, 『松南雜識』, 「向日花」, 左傳曰 鮑莊子之智 不如葵 葵猶能衛其足 曹植曰 葵藿之傾葉 太陽雖不回光 然向之者誠也 註向日不令照根 猶葛藟之庇根也 (中略) 其子鷄食而 人食其鷄則死 云毒亦酷。  
 56) 저자미상, 『廣才物譜』, 「黃蜀葵」, 向日葵. 葉大如蓖麻葉 莖長六七尺 花大如椀 鶯黃色 六瓣而側 朝開午收暮落 子如齒麻子. 黃葵. 向日花. 側金盞花.  
 57) 鄭允容, 『字類註釋』, 「葵」, 아욱 卽 陽草 百菜之主 四時之饌 又向日葵 卽 傾葉向日 不照其根 能衛足 又 終葵 圭上葵首也.  
 58) 池錫永, 『字典釋要』, 「葵」, 菜名 아욱 卽. 向日花 해바라기 卽.  
 59) 李時珍, 『本草綱目』, 「葵」, 葵葉傾日 不使照其根 乃智以揆之也.

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채취하라고 하였다.<sup>60)</sup>

1949년에 출간된 『朝鮮語辭典』에서는 해바라기를 葵藿, 葵花, 向日花와 같다고 하였다.<sup>61)</sup> 하지만 葵藿은 접시꽃과 콩잎을 말하고 있으며, 葵花는 접시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바라기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해바라기의 설명과 向日花라고 본 것은 맞는 것이다.

### 5. 葵를 잘못 해석한 경우들<sup>62)</sup>

우리는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통하여 선조의 지혜를 이어받을 수 있으나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葵를 잘못 오역함에 따른 폐단을 막고 잘못된 한문사전을 바로 잡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 1) 葵藿은 해바라기가 아닌 葵(접시꽃)와 藿(콩잎)이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葵藿을 '해바라기' 또는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하여 기운다는 뜻으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공경함'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있으나<sup>63)</sup> 이는 접시꽃과 콩잎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拭疣集』에 '葵藿名雖異 傾陽性則同'이란 문장이 나오는데<sup>64)</sup> '접시꽃과 콩의 이름은 다르지만 傾陽性은 서로 같'다'로 번역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葵藿을 하나의 식물로 본다면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辭源』에 葵藿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皆植物之類者'라 하였다. 葵藿을 하나의 식물로 보았다면 皆(모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葵와 藿을 분리하여 보아야한다. 이어 藿(콩잎)은 向日性이 없지만 문맥상 넣은 것이라라는 보충설명이 있어

60) 張志淵, 『農學新書』, 「玉菘」, 玉菘亦染料 我國所稱向日花也 擇肥田以人馬糞培耕 春分後分根植之 時洗藥汁 秋分時晴日刈採 若雨中刈採 則雖煎之又煎 必無黃色 凡草木之採葉者 皆宜晴採 若雨採則功能甚薄.

61) 문세영, 『朝鮮語辭典』, 「해바라기」, 菊科에 붙은 栽培草. 잎은 둥근데 끝이 뾰족하고 짙갈한 잔 털이 있고 꽃은 황색으로 크게 피는데 늘 해를 따라 고개를 숙이는 화초. 葵藿. 葵花. 向日花.

6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현희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63)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1920.  
 東亞出版社辭書部, 『新撰 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1963.  
 吳漢根, 『新字源』, 崇文社, 1967.  
 신기철,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1975.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79. 1997.  
 『대국어사전』, 현문사, 1985.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1988.  
 東亞出版社編輯局, 『동아 漢韓辭典』, 東亞出版社, 1992.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3.

64) 金守溫, 『拭疣集』, 「向日葵花」, 葵藿名雖異 傾陽性則同 物無譜俗韻 義有事君忠 蠢蠢速眞性 昏昏昧降衷 天工賦與意 的端此花中.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65)</sup> 따라서 葵菴은 해바라기가 아닌 접시꽃과 콩잎으로 보아야 한다.

## 2) 『詩經』에 나오는 葵는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이다.

일부 한문사전에서 『詩經』에 나오는 '七月亨葵及菹'의 葵를 해바라기로 보고 있으나<sup>66)</sup> 이는 아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詩經』의 朱子註에 '葵 菜名'이라 하여 채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丁學祥의 『詩名多識』(1850)에서도 葵를 설명하는데 아욱임을 밝히고 있다.<sup>67)</sup> 또한 잎을 삶아 먹을 수 있는 것은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이며 콜럼버스 발견 이전의 문헌이기 때문에도 『詩經』의 葵는 아욱을 보아야 한다.

## 3) 葵花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접시꽃이다.

대부분의 사전류에서 葵花를 접시꽃이 아닌 해바라기 또는 해바라기의 꽃으로 잘못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68)</sup> <표 1>에서 보이듯이 葵花는 蜀葵의 異名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규화 또는 축규화로 불려진 접시꽃(Althaea rosea Cav)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葵花는 접시꽃으로 번역되어져만 한다.

가장 최근에 나왔으며 고증이 정확하다고 알려진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접시꽃문양의 葵花簪을 해바라기의 꽃모양으로 잘못 보고 있으며,<sup>69)</sup> 접시꽃 무늬의 葵花盞을 해바라기 꽃무늬가 있는 잔으로 잘못 보고 있다.<sup>70)</sup>

- 65) 賈傳棠, 『辭源』, 中州古籍出版社, 1993, 「葵菴」, 皆植物之賤者 下對上之詞 恆用之以自此 曹植上疏求問親戚 因致其意曰 若葵菴之傾葉 太陽雖不爲之回光 然向之者誠也. 見三國志. 按菴無向陽之性 特連類而及之詞也.
- 6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79, 1997.
- 67) 『詩名多識』에서의 葵에 대한 설명이 『本草綱目』의 아욱과 동일하다.  
丁學祥, 『詩名多識』, 「葵」, 朱子曰 葵菜名. 本草曰 葵一名滑菜 一名露葵 一名衛足 傾日不使照其根 大葉小花 花紫黃色 其最小者名鴨脚葵 其實大如指頂 皮薄而扁 實內子輕虛如榆杏仁 四五月種者可留子 六七月種者爲秋葵 八九月種者爲冬葵 經年收採 正月復種者爲春葵 然宿根至春亦生.
- 68) 문세영,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49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1961.  
東亞出版社辭書部, 『新撰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1963.  
弘字出版社編輯部, 『國漢最新大字典』, 弘字出版社, 1968.  
新韓出版社辭書部, 『새국어대사전』, 新韓出版社, 1972.  
學英社編輯部, 『新字典』, 學英社, 1973.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표준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88  
동아출판사판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92.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97.  
千龍淑, 『活用玉篇』, 現代中國學術研究, 1999.
- 69)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1996  
『朝鮮王朝實錄』(成宗 11년 8월 甲子)의 '石珍珠葵花簪一根'을 인용하면서 해바라기로 보았으나 成宗 11년(1480)은 콜럼버스가 해바라기를 유럽으로 가져온 1492년보다 앞서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될 수가 없다.
- 7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1996  
『朝鮮王朝實錄』(光海君 4년 11월 辛卯)의 '白淺子菊花樣 此則我國所謂葵花盞'은 '국화 문양이 박힌 白淺子'는 바로 우리 나라에서 葵花盞이라한다.'로 볼 수 있는데 접시꽃의 모양은 국화와 비슷하지만 해바라기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葵花盞은 해바라기가 아닌 접시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전류에서 葵花를 접시꽃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하였지만 해바라기로 해석하는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sup>71)</sup> 최근 도자기 연구에 있어서 花形 器皿(꽃모양의 그릇)을 분류하는 기준인 葵形, 葵花, 葵花口, 葵口形을 해바라기가 아닌 접시꽃의 모양으로 인식하고 있어<sup>72)</sup>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4) 向日葵花는 해를 향하는 접시꽃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해바라기를 向日葵라 하여 해바라기의 부위에 따라 向日葵莢(열매껍질), 向日葵根(뿌리), 向日葵葉(잎), 向日葵子(열매), 向日葵

(꽃), 向日葵花托(꽃받침)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sup>73)</sup> 따라서 向日葵는 해바라기를 지칭하는 것임은 분명 하지만 문제는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전인 문헌에서도 向日葵가 보이는 것이다. 현재 이를 해바라기(向日葵) 꽃(花)으로 번역하기도 하나, 向日葵는 해를 향하는(向日) 접시꽃(葵花)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 초에 나온 문집을 보면<sup>74)</sup> 向日葵花라는 詩題로 많은 시가 쓰여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門前楊柳(문앞의 楊柳), 窓外芭蕉(창 밖의 芭蕉), 半開山茶(반쯤 핀 山茶), 雪中冬白(눈 속의 동백) 등의 詩題와 같이 '해를 향하는 葵花'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鄭惟吉(1515~1588)은 向日葵花가 蜀葵(접시꽃)임을 밝히고 있어<sup>75)</sup>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71) 신기철,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1975.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館, 1977. 1988.  
『대국어사전』, 현문사, 1985.  
『새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1989  
金星出版社辭書部, 『뉴에이스 國語辭典』, 金星教科書株式會社, 1989.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3.

72) 張東哲, 「高麗時代 花形磁器 研究」, 『미술사 연구』, 미술사연구회, 제12호, 1998.

73)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7.

74) 崔恒(1409~1474), 『太虛亭集』, 詩集 卷一, 向日葵花.  
金守溫(1409~1481), 『拭疣集』, 卷四, 向日葵花.  
申叔舟(1417~1475), 『保閑齋集』, 卷六, 向日葵花.  
成三問(1418~1456), 『成謹甫集』, 卷一, 向日葵花.  
俞好仁(1445~1494), 『(苴)谿集』, 卷六, 向日葵花.  
金駟孫(1464~1498), 『濯纓集』, 續集 上, 向日葵花.  
朴祥(1474~1530), 『訥齋集』, 卷四, 向日葵花.  
蔡壽(1499~1515), 『懶齋集』, 卷二, 向日葵花.  
鄭惟吉(1515~1588), 『林塘遺稿』, 上, 向日葵花.

75) 鄭惟吉, 『林塘遺稿』, 「向日葵花」, 落盡羣芳送晚晴 蜀葵新艷照軒楹 臘脂乍遇飄風破 紅率長隨白日傾 北海孤臣回望眼 西山叢上感深情 生采衛足瑤階上 一寸丹心倍覺明.



5) 『春秋左傳』의 葵는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이다.

『春秋左氏傳』은 孔子(기원전 551~479)의 『春秋』(기원전 479)를 재해석한 것으로 春秋時代 魯의 君子 左丘明의 저서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鮑莊子之智 不如葵 葵猶能衛其足'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는 '鮑莊子の 지혜는 아욱보다 못하다. 아욱은 능히 자신의 다리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로 번역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전에서는 아욱이 아닌 해바라기로 이해하고 있다.<sup>76)</sup>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春秋시대에는 해바라기가 없었기 때문에 葵는 아욱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淸나라 백과사전인 『淵鑑類函』(1710)에서도 아욱(葵)을 설명하는 조문에 『春秋左傳』의 문장을 인용하였다.<sup>77)</sup> 또한 보통 葵라 하면 아욱을 지칭한다<sup>78)</sup>고 『物名考』(1830)에서 강조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 葵心, 葵傾은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을 지칭한다.

일부 사전<sup>79)</sup>에서 葵心, 葵傾을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기울어진다는 뜻으로 君王이나 長上의 덕을 景仰하는 뜻으로 쓰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葵傾을 설명하는데 '若葵藿之傾葉 太陽雖不爲之回光 而向之者誠也'의 예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葵藿은 아욱과 콩잎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葵傾과 葵心은 해바라기가 아닌 아욱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편 葵懇(접시꽃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접시꽃을 지칭하는 것이다. 『大東韻府群玉』(1798)에서 葵懇을 설명하면서 葵花(접시꽃)를 설명하고 있다.<sup>80)</sup>

7) 向日葵는 해바라기 도입이전에도 사용되었다.

현재 向日葵는 해바라기를 지칭하고 있으나 해바라기가 도입되기 이전에 向日葵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河弘度(1593~1666)의 문집인 謙齋集에 向日葵란 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蜀葵(접시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옛날에 듣기를 芻蕘(堯임금 때 조정의 뜰에 난 상서로

76)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 漢韓大辭典』, 동아출판사, 1982.

77) 張英, 『淵鑑類函』, 「葵」, 左傳仲尼曰 鮑莊子之智 不如葵 葵猶能衛其足.

78) 柳僖, 『物名考』, 「露葵」, 文字單稱葵者 多指此葵 아욱. 滑菜 陽草 同.

79) 弘字出版社編輯部, 『國漢最新大字典』, 弘字出版社, 1968.

韓英社編輯部, 『新字典』, 學英社, 1973.

張三植, 『大漢韓辭典』, 教育書館, 1975. 1987.

李家源 張三植, 『漢字大典』, 韓英出版社, 1976.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79. 1997.

동아출판사편집국, 『東亞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82.

千龍淑, 『活用玉篇』, 現代中國學術研究, 1999.

80)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葵懇」, 每瀉赤心傾白日 欲輸凌懇啓朱唇 (魚咸從葵花)

운 풀)이 요임금의 계단에 생겼는데 잎이 일월과 똑 같이 피고 지었다네. 순박한 풍속은 이미 멀어지고 뿌리도 말랐는데 아름다운 혼이 변하여 뜰 앞의 꽃이 되었구나. (中略) 아침이면 밝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여 금띠를 구부리고 저녁에는 지는 풍경에 화려한 비녀 드리우네. 햇빛 고운 곳엔 꽃 빛도 곱고 햇빛 옮겨갈 때 꽃 그림자도 옮겨간다. 이제야 사물의 본성은 진실로 뱉을 수 없음과 구만리 위로 應하여 오래도록 따름을 알겠도다. 丹心 기울이나 해는 더욱 높아지니 해를 향한 작은 정성 하늘이 어찌 알겠는가. 북쪽에 옮겨 심어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구름에 기대고 이슬에 조화로울 때가 언제런가. (中略) 충심은 해를 사랑하여 게으르지 않고 지혜는 발을 보호하여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다. 鮑莊이 폼하될 줄 진실로 알지 못하였고 謫仙이 시를 지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바라건대 바다가에 해를 받드는 충심이 있으며 풀 중에 葵花(접시꽃)가 있고 사람 중에 기약하는 이 있음을 보소서.<sup>81)</sup>라 하였는데, 문장 중에 葵花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向日葵는 해바라기가 아닌 접시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趙憲(1544~1592)의 『重峰集』에 나오는 '向日葵賦'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sup>82)</sup>

### III. 결 론

아욱(葵菜),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花, 向日葵)에 대한 문헌정리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葵菜는 '阿夫實 → 阿郁 → 아욱(아혹) → 아욱'의 표기변천을 거치며, 冬葵를 돌아욱이라하는 까닭은 해를 넘기는(돌) 아욱이라는 뜻이다.

둘째, 아욱의 向日性은 忠과 智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져, 衛足, 陽草로도 불려졌다. 또한 蜀葵 黃蜀葵 向日葵의 向日性과 맞물려 확대해석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冬葵子는 補腎작용이 있으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함으로서 清熱작용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기 쉬운 소양인에게 알맞은 약재라 할 수 있다. 아욱의 異名인 破屋草, 破槌菜, 西玉母菜는 아욱의 補腎작용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넷째, 黃蜀葵(닥풀)를 一日花(일일화)로 보았으나 해바라기가 도입된 이후 黃蜀葵와 해바라기를 혼동하여 닥풀을 해바라기(向日花)로 잘못 인식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현존하는 문헌 중 해바라기에 대한 최초 기록은 『靑莊館全書』(1795)이며 1700년대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일부 사전류의 잘못된 기록으로 인하여 葵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가져왔으나 이는 바로 잡아져야만 한다.

81) 河弘度, 『謙齋集』, 「向日葵」, 昔聞葵莢生堯階 葉與日月同榮萎 淳風已遠根亦枯 芳魂化爲庭前葵 (中略) 朝迎晴旭金帶屈 夕望落景華簪垂 日色鮮霞花色鮮 日影移時花影移 乃知物性固莫奪 上應九萬長相隨 丹心傾盡日愈高 向日微忱天豈知 移我北辰不可得 倚雲和露將何時 (中略) 忠能愛日心不息 智能衛足身不危 鮑莊見貶固不知 謫仙題詩良足悲 請看崖海奉日忠 草有葵花人有期.

82) 趙憲, 『重峰集』, 「向日葵賦」, (前略) 忠君之…念兮 與葵懇其愛日.

## 참 고 문 헌

### \*古書類

『靈樞經』

『朝鮮王朝實錄』

『鄉藥救急方』, 高宗 23년(1236)

孔子編, 『詩經』

郭璞 註, 『爾雅』, (晉)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正祖 22년(1798)

金守溫(1409~1481), 『拭疣集』

金駟孫(1464~1498), 『濯纓集』

金迥洙 譯著, 『月餘農歌』, 哲宗 12년(1861)

唐慎微, 『經史證類備急本草』, 1108(宋)

繆希雍, 『本草經疏』, 1625(明)

朴祥(1474~1530), 『訥齋集』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純祖 15년(1815)

司譯院, 『譯語類解』, 肅宗 16년(1690)

徐命應, 『本史』, 正祖 11년(1787)

徐有渠, 『林園經濟志』, 純祖 27년(1827)

成三問(1418~1456), 『成謹甫集』

申叔舟(1417~1475), 『保閑齋集』

吳儀洛, 『本草從新』, 1757(清)

吳晉 等述, 孫星衍 輯, 『神農本草經』, (魏)

王禎, 『農書』, 1313(元)

魏收, 『魏書』, (北齊)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英祖 42년(1766)

劉灝, 『佩文齋廣羣芳譜』, 1708(清)

俞好仁(1445-1494), 『濡谿集』

俞孝通·盧仲禮·朴允德 撰, 『鄉藥集成方』, 世宗 15년(1433)

俞孝通·盧仲禮·朴允德 撰, 『鄉藥採取月令』, 世宗 13년(1431)

柳億, 『物名考』, 純祖 30년(1830)

柳希春, 『新增類合』, 宣祖 7년(1574)

李嘉煥, 李載威, 『物譜』, 純祖 2년(1802)

李德懋, 『靑莊館全書』, 正祖 19년(1795)

李時珍, 『本草綱目』, 1590(明)

李億成, 『蒙語類解』, 英祖 44년(1768)

張英, 『淵鑑類函』, 1710(清)

張志淵(1864~1921), 『農學新書』, 純宗 3년(1909)

張志淵(1864~1921), 『菜蔬栽培全書』, 皇城新聞社, 純宗 3년(1909)

張混, 『蒙喻篇』, 純祖 15년(1810)

저자미상, 『廣才物譜』

저자미상, 『物名括』

저자미상, 『良方金丹』

鄭惟吉(1515~1588), 『林塘遺稿』

鄭允容, 『字類註釋』, 哲宗 7년(1856)

丁學祥, 『詩名多識』, 哲宗 元年(1850)

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1920

趙在三, 『松南雜識』, 哲宗 6년(1855)

趙憲(1544-1592), 『重峰集』

池錫永, 『字典釋要』, 純宗 3년(1909)

蔡壽(1499~1515), 『懶齋集』

崔世珍, 『訓蒙字會』, 中宗 22년(1527)

崔恒(1409~1474), 『太虛亭集』

河弘度(1593~1666), 『謙齋集』

韓秉璉, 『醫方新鑑』, 1915

許浚, 『東醫寶鑑』, 光海君 5년(1613)

玄文恒, 『同文類解』, 英祖 24년(1748)

洪萬選, 『山林經濟』, 肅宗 41년(1715)

黃度淵, 『方藥合編』, 高宗 22년(1885)

黃度淵, 『醫宗損益』, 高宗 4년(1867)

### \*\* 新書類

賈傳棠, 『辭源』, 中州古籍出版社, 1993.

江蘇新醫學院, 『中藥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7.

김달래, 『한의사 김달래의 체질따라 약이 되는 음식  
224』, 경향신문사, 1996.

南豊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1981.

문세영,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49.

沈相龍, 『漢方食療解典』, 創造社, 1976.

임용규 외, 『자원식물학』, 卷一, 1997.

林雄圭, 『資源植物學』, 先進文化社, 1983.

\*\*\* 論文類

李秉根, 「해바라기(向日葵)의 語彙史」, 『冠嶽語文  
研究』, 22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張東哲, 「高麗時代 花形磁器 研究」, 『미술사 연  
구』, 미술사연구회, 제12호, 1998.